

박태원 교수의 47

불교로 보는 인생

初心, 그 순수의 정열

초발심 지켜가는 이
진리답고 아름답다

'박하사탕' 이라는 영화가 있다. 야생 들꽃 한 송이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팔베개하고 누워 푸른 하늘 쳐다보며 서정시 같은 삶의 꿈에 가슴 설레던 순수한 젊음. 애틋한 마음 주고받은 여자 친구가 보내오는 박하사탕을 모아두며 그리움의 온기를 지켜가던 그의 군대 생활은, 5·18 광주의 덫에 덜컥 걸려 들견서 속절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자책과 죄의식에 떠밀린 그의 삶은 그 때부터 깊은 허무의 늪으로 빠져든다. 그렇게 순수를 상실하고 허무에 오염되던 삶은 마침내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하고 선다. 그의 마지막 절규 –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 누구라도 언젠가는 짙게 맡아보았을 그 순수의 향기를 얼마나 지켜내는가에 인생의 빛깔이 달라지지. 나이 먹어 간다는 것,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 만들고 유지해 간다는 것은 흔히 순수의 상실 과정이기도 하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더벅머리 시골 초등학생이 느끼었다. 불서도 손에 잡히는 대로 탐독하였고 선문(禪門)의 길도 진지하게 흉내 내었다. 강의를 들으면서도, 등·하교 길 차안에서나 걸을 때에도 제법 순일하게 화두를 놓치지 않았다. 어느 때는 너무 의욕이 앞서 약간의 상기(上氣) 증상으로 코피가 곧잘 터지기도 했다.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오직 '끌림'을 향해 그토록 순수한 열정을 발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특별한 현상도 간혹 있었다. 그렇게 오롯이 공부챙기는 데 전념하던 어느 날, 문득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미묘하게 청아한 향내가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닌가. 길을 걸을 때나 자리에 누울 때나 며칠 동안 그 향내가 몸을 떠나지 않았다. 집에서 향 한 자루 사른 적이 없는데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었다. 후일 경전을 보다가 그런 향내와 현상에 관한 구절을 접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순수한 몰입의 징표'로 여겼었다.

졸업 후 대학원에서의 엄밀한 학문적 훈련, 다양한 철학적 안목들과의 조우, 불교 이론의 체계적 연구는 분명 매우 유익하였다. 안목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고, 기왕의 내 공부가 어떤 위상과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 선명해져서 좋았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다. 그 '순수한 몰입'의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것을 느꼈다. 책과 씨름하다 보니 글 안보고 챙기던 공부가 느슨해졌고, 취업과 같은 현실 문제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순수의 시절'이 퇴색하고 있었다.

순수의 열정, 그 초심의 광휘야말로 삶의 보배이다. 초심의 빛나는 순수가 바래면 허무에 무너지는 법. '깨달음을 향해 처음 마음을 낼 때가 바로 진리 구현의 순간(初發心時便成正覺)'이라 했던가. 초심의 순수를 지켜 가는 이들은 그래서 진리답고 아름답다.

던 소녀에 대한 애틋한 애상이 내 삶 한 모퉁이에서도 빛나던 때를 잊지 않았는가. 세상의 불의에 사심 없는 절망과 분노를 태우고, 중생사 모든 고통들을 온통 자기 것인 양 느끼어 구세(救世)의 열정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청춘의 순수가 아직도 주위를 배회하는가.

모든 초심(初心)은 그런 순수를 안고 있다. 인생의 질긴 관행에서 크게 한 번 발 빼 보려는 마음을 낼 때, 그 초발심(初發心)에도 이 순수의 정열이 짙게 배어있다. 생명은 그 순수의 불에 정련(精鍊)될 때 보석으로 빛나게 된다. 누구라도 어떤 식으로든 적어도 한 번은 피어오르기 마련인 순수의 불꽃. 그러나 삶은 또 얼마나 거친 황야이던가. 사방 팔방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앞에, 꺼지지 말아야 할 그 불꽃은 너무도 허망하게 사그라지곤 한다. 혹 불씨가 식어버린 순수를 애써 분장시켜 시장에 내다놓기라도 할 때는, 그 자기 기만의 악취에 떠밀려 스스로 허무와 허탈의 발걸음을 어지럽게 내딛곤 하는 중생.

대학생 시절, 불문(佛門)의 인연에 든 후 나름대로는 꽤나 열심이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몸과 마음 청정" 불보살 가피 발원

참불자의 길 불공의 의미와 절차



◇사찰에서는 매일 오전 10시경 사시불공을 드린다.

"불공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옆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지난 보름날 처음으로 불공을 하러 절을 찾았던 한 보살의 볼멘 소리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한 경우는 이 보살만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20년, 30년 절에 다닌 불자들도 불공의 의미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식이 태반이다.

일반적으로 불공은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향, 등불, 꽃, 차, 과일 등의 공양물을 올리는 기도를 말한다. 부처님 재세시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으나 입멸 후에는 부처님의 사리탑이나 불상, 탱화 등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여 공양을 올렸다.

그렇다면 공양의식 즉 불공은 어떻게 진행되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불공은 크게 고등이 닥쳤을 때 하는 소원성취불공, 생일과 결혼 등의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는 공덕회향불공이 있는데, 대상에 따라 미타청, 약사청, 미륵청, 관음청, 지장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호법신을 따로따로 공양하는 것을 각청(各請)이라 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제불통청(諸佛通請)이라 한다. 제불통청은 불·법·승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라고 해서 삼보통청(三寶通請)이라고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불공의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천수경〉과 정삼업진언(淨三業眞言), 개단진언(開壇眞言), 건단진언(建壇眞言),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을 염송하고, 거불(擧佛), 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 유치(由致), 청사(請詞)를 한다. 이어 꽃과 향으로 청하는 향화청(香花請)을 한 다음 부처님을 찬탄하는 가영(歌詠)을 한다. 그리고 진리를 안내하는 헌좌진언과 정법계 진언을 하고, 차를 올리는 다게를 한다. 그리고 진언으로써 공양을 권한다. 이를 진언권공이라 하는데 사다라니(四陀羅尼)와 운심공양진언(運心供養眞言), 보공양진언(普供養眞言), 보회향진언(普回向眞言), 원성취진언(願成就眞言), 보궐진언(普闕眞言) 등이 있다. 이 중에 사다라니는 음식공양이 원만히 성취되기 위하여 불보살의 가호를 기대하면서 외우는 진언이다. 이어 불공에 참석한 사람들을 낱낱이 소개해 올리는

천수경–거불–진언권공
예참–정근–축원 順

예참을 한 뒤 정근과 축원을 한다.

축원을 기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축원의 본래 의미는 예불과 예참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과 몸을 청정히 하고 난 후에 불보살님의 가피를 발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만의 안위와 이익이 아니라 일체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고 더불어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발원으로 예불 때하는 행선축원과 불공 때 하는 각단축원이 있다.

사실 불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보다 그 속에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불공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자비심을 증장시키는 정신적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살펴보면 '거불'은 불타·달마·승가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리는 것이고, '보소청진언'은 모시러 온 것은 아뢰는 것이다. '유치'는 모시게 된 까닭을 밝히는 것이며, '청사'는 여러 불보살님께 공양받기를 받들어 청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축원'은 몇 명을 중심으로 그들의 숫자와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불공을 드리기 전에 〈천수경〉의 정법계 진언을 외우는 것은 도량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정삼업진언'은 몸과 입과 뜻을 청정히 하는 것이고, '개단진언'은 단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사찰에서는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에 불공을 드리는데 이를 사시불공 또는 사시마지라고 한다.

김중근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25

왕내한에 대한 답서(1)

한 생각 내려놓는 체험 '공부 가속도'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다만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되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無).' 라고 한 화두를 살피시되, 쓸데없이 사량하는 마음을 붙잡아 무자(無字) 위에 돌려놓고 시험 삼아 한 번 사량해 보십시오. 문득 사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 한 생각을 부술 수 있다면 여기가 곧 삼세(三世)를 깨닫는 곳입니다. 깨달았을 때에는 적당히 배치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끌어들여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그 곳은 배치함도 허용치 않으며 헤아림도 허용치 않으며 입증함도 허용치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끌어들여 입증할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고 적당히 배치할 수 있다면 이것은 깨달은 것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만 놓아서 탕탕히 흐르게 할 뿐, 선과 악을 모두 사량하지 말며 뜻에도 집착하지 말며 생각을 잊음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뜻에 집착하면 생각 따라 이리저리 흘러다닐 것이고, 생각 잊음에 집착하면 깜깜하고 멍청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선 공부에서 가장 큰 고비는 한 생각 내려놓는 체험이다. 이 체험을 십우도(十牛圖)에서 보면 '소를 보다'[見牛] 혹은 '소를 얻다'[得牛]에 해당할 것인데, 이제까지 안개 속에서 더듬어 찾다가 문득 소를 발견하여 그 고삐를 손에 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체험은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부에 대한 갈증에만 의지하여 이리 저리 헤매며 찾아 왔던 암중모색(暗中摸索)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자, 동시에 이제 공부에 힘이 붙고 재미를 느끼며 더욱 깊고 세밀하게 나아가는 본격 공부의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한 생각 내려놓는 체험이야말로 마음 공부에서는 결정적 관문이다. 이 관문만 통과하면 마음 공부는 길도 없이 헤매다가 길을 찾은 셈인 것이다. 그러나 이 관문은 결코 쉽게 뚫리지 않는다. 수많은 공부인들이 이 관문에서 좌절하여 길찾기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쉽게 찾아지는 잘못된 길에 만족하여 옆길로 빠져 버리고 만다.

이 관문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눈(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통 사람이 가진 눈은 늘 '눈 앞에' 나타나는 '모양 있는' 것을 보도록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마음을 보려면 '눈 앞에' 나타나는 '모양 있는' 것이 아닌, '모양 없는 눈 그 자체'를 보는 눈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부가 무엇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의식 속에서 생각으로 헤아려 이름과 관념[名相]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름과 관념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익숙해 있는 이름과 관념이 마음을 파악하는 데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름과 관념에 물들고 길들여져 있는 범부는 이름과 관념을 버리고 자기 존재를 파악하라는 요구 앞에서 그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헤매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정말 가련한 일이다. 눈은 스스로를 '앞에 나타나는 모양'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앞에 나타나는 모양'을 봄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즉 눈은 쓰임[作用]을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낸다. 화두를 살핀다[看話]는 것은 바로 눈(마음)의 쓰임을 말한다. 우리는 화두를 살핌으로써 마음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쓰지 않을 때에는 어떤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마음을 쓰지 않아서 의식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寂寐一如]

따라서 마음을 찾는 공부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마음은 그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을 뿐, 이름과 관념으로 파악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식이 있을 때에는 순수한 작용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의식이 없으면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부디 이름과 관념으로 파악하려 들지 말라. 바로 지금 이렇게 활발히 살아 움직임에서 마음과 하나되어 존재하라.

http://www.mindfree.net/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 등록하고 무늬없는 승복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 춘추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합니다.
◆ 하 복 : 모시처럼 시원하며 구김이 없고 다림질이 필요치 않음
◆ 장 삼 : 가벼워서 입기가 아주 편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 가 방 : 완전 방수처리 되며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춘추복	저고리 바지.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하복	저고리 바지.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장 삼		조계종	200,000
		태고종	200,000
손가방		大	28,000
		小	23,000
바 랑			30,000

※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생산함
※ 맞춤 전문으로 생산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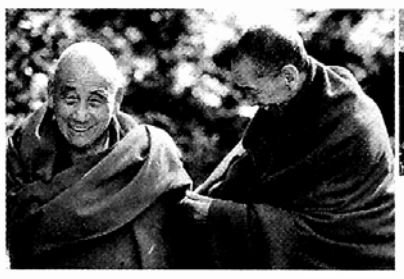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용 B/D 3F 302호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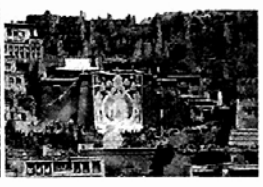
티벳성지순례 노하우 국내 1위 – 세계일류여행사 티벳성지순례

세계 라마부디즘의 진수 쿤둔 티벳 예불 참석 순례

달라이와 판첸라마의 육신불 2구를 모신 티벳 제일의 불보사찰 타쉬룬포의 방장님이 티벳불교사상 처음으로 라마예불에 한국 스님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불참석외 일정
포탈라궁,죠캉(대소사),세라사,쩌방사,링코르,
바르코르,노부링카,쿰붐,바이취사,얌드록쵸,
신산,장즈산성 등 티벳 15대 성지 순례

참가비 : 195만원
• 출국세, 비자비 외 일체 경비 포함

접수 마감 : 8월 25일(토)까지

출발일 : 9월 4일(화) 오후 5시 30분(7박 8일)

문의 : 02-722-8121
• 불자가 아닌 속인은 본 순례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수시 모집합니다

주최: 세계일류여행사, 티벳불교문화답사회